

‘투자유의 위믹스’ 개선책 발표에도 위메이드 주가 하락세

위믹스, 유동성 공급 활용 ‘해명’
“공시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 등
유의종목 해제에 노력 다할 것”

발행사 위메이드 주가에도 불똥
반복된 잡음에 투자자 신뢰에 금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일제히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가운데 해명과 개선책을 내놨음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올해 초 대량매도 논란에 이어 또 다시 잡음을 일으키면서 투자자들이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위믹스는 전일 대비 40원(2.13%) 내린 1835원에 거래 중이다.

위믹스는 지난 27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대형거래소에서 일



제히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시세가 급락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위믹스가 제출한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발생했으며,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유의종목 지

정을 안내했다. 당일에만 25%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2500원대에서 머무르던 가격이 하룻밤새 1900원대로 추락했다.

위믹스는 전날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메인넷(블록체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에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예치되어 있는 물량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통량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물량 만큼의 예상 유통량과 차이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상시 공시 강화 등 공시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유의종목 해제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문 발표와 동시에 가격이 곤두박질 치면서 무너진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해명문이 발표된 전날 오후 8시경 업비트 기준 7.23% 하락했으며, 다른 거래소에서도 6~8% 하락세가 나타났다.

업계에서도 위믹스 측의 반복된 잡음 발생으로 투자자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 초에도 대량 매도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 차례 해명에 나선 바 있다”라며 “앞선 공시 미비 이슈가 발생한지 일 년

도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같은 논란에도 공시 의무가 있는 주식시장과는 달리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은 공시 의무가 없다. 윤창현 의원은 이같은 공백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 방안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 법 제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논란 속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 주가 역시 타격을 입었다. 위메이드는 이날 150원(0.00%) 내린 4만 4000원에 장을 마쳤다. 위메이드는 지난 28일에만 20.55% 급락한데 이어 이 날까지 약보합마감했다.

더불어 위메이드 자회사인 위메이드 맥스도 전거래일과 종가가 같았으며, 위메이드플레이이는 4.00% 내린 7.40% 마감했다. 두 자회사 역시 지난 28일 15% 이상씩 하락을 기록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우주 발사체 특수 소재 나사·스페이스X에 공급

株라큘라의 종목
肯코아에어로스페이스

신사업 MRO 매출 76억원 발생
美 발사체 시장 확대로 수혜 예상
우주·UAM 등 기업 가치 재평가



하고 있다”며 “기존 고객사 레퍼런스와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싱가포르의 ST엔지니어링으로부터 3800억원 규모의 PTF 사업을 수주를 받았으며 23년 까지 생산량 증가로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肯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신사업인 우주와 도심항공교통(UAM)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자회사 캘리포니아 메탈은 발사체 제작에 필요한 특수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주요 고객사는 NASA, 스페이스X 등 미국의 주요 발사 서비스 업체”라며 “특수 소재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주항 제품은 미국의 발

DL건설, ‘e편한세상 홍성 더센트럴’ 공급 시작

전용면적 84~101㎡, 총 470가구
군 전 지역·주변 도심권 이동 용이

DL건설은 충남 홍성군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홍성 더센트럴’ 84~101㎡ 470가구의 주택전시관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타입별로는 ▲84㎡A 154가구 ▲84㎡B 119가구 ▲84㎡C 117가구 ▲101㎡ 80가구다.

홍성군에 처음 선보이는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단지 설계에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세대 내에는 대형 현관 팬트리를 설치해 수납력을 높이고, 거실 아트월을 주방 공간까지 확장하고 주방에는 와이드 주방창호를 적용해 통기성을 높이는 동시에 탁 트인 시야를 확보했다.

커뮤니티시설로 체력 증진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룸 등의 운동 공간과 아이들의 여가 및 놀이를 위한 실내놀이터, 어린이집 등 자녀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또 가족과 이웃간의 교류가 가능한



‘e편한세상 홍성 더센트럴’ 조감도.

주민카페, 경로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로 교통망으로는 단지와 인접한 종서로, 내포로 등을 이용해 홍성군 전 지역 및 주변 도심권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홍성종합터미널, 장항선 홍성역, 서해안고속도로(홍성IC) 등 광역 교통망도 잘 갖췄다.

특히, 홍성역에는 일산 대곡까지 이어지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 예정이

며,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연계되는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청약 일정은 11월 1일 1순위 청약, 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미만 세대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는 100% 추첨제다.

주택전시관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에 위치해 있다. (1566-3220)

강남 직주근접 ‘힐스테이트 삼성’ 분양

현대건설

전용면적 50~84㎡ 총 165실 규모
인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예정



‘힐스테이트 삼성’ 조감도.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삼성’을 분양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삼성’은 지하 7층~지상 17층, 전용면적 50~84㎡, 총 165실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50㎡ ▲60㎡ ▲64㎡ ▲70㎡ ▲74㎡ ▲76㎡ ▲80㎡ ▲84㎡ 등으로 공급된다. 펜트하우스는 ▲68㎡P A ▲71㎡ ▲84㎡ 등으로 구성돼 있다.

힐스테이트 삼성은 서울 3대 업무지구인 강남업무지구와 직주근접 단지로

발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199만㎡ 면적의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하고, 국제업무, 전시·컨벤션 등 마이스(MICE) 산업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의 수혜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영동대로 삼성역·봉은사역 구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C노선), 도시철도(우례신사), 지하철(2, 9호선) 및 버스·택시 등의 환승을 위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지난해 6월 착공됐으며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강남 중심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브랜드 단지로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단지 인근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

/김대환 기자 kdh@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이승환 연구원은 ‘肯코아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우주 발사체 특수 소재를 나사(NASA), 스페이스X 등 미국의 주요 발사체 업체에게 공급하는 기업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31일 밝혔다.

肯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2013년 설립된 항공기 부품 및 완제품 제작,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민항기와 수리온, KT-100 등의 군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록히드마틴, 보잉, 에어버스 등 글로벌 업체들의 정식 벤더로 등록돼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또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중이다. 2017년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티어(Tier)1 벤더인 Kenco Aerospace LLC를 인수했다. 미국 내 원재료, 파츠 공급 등 벤더 체인 체계를 구축하며 가파른 실적 성장을 하고 있다. 2022년에는 발사 서비스 업체 벤더기업에 지분 투자하며 우주항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분기에는 매출액 187억원, 영업이익 43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4.5%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신사업으로 진출한 MRO(제조·판매·운영·유지보수) 부문의 매출이 76억원 발생하며 사업 초기 고정비 커버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이승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肯코아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기 생산 및 기체부품 사업 부문은 글로벌 항공기 시장 회복 주제에 맞춰 점진적으로 회복

/박미경기자 mikyung96@